독일의 사후면세점제도

정보신청기관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Ⅰ. 독일의 사후면세점(Tax Free Shop)

1. 〈Tax Free Shopping〉의 정의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사전면세점과 외국인 관광객이 일단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구입한 후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주는 사후면세점으로 구분된다.

보통 <Tax Free Shopping>이라 불리는 사후면세점제도에 대한 독일에서의 정의는 "외국인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제혜택(steuer-rabatt)' 을 받아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세제혜택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환급(Rückerstattung der Mehrwertsteuer)에 근거하고,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 - 독일은 물론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 - 에서 구매자인 외국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소위 '간접세(indirekt Steuer)' 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제도이다.

2. 면세의 이유와 근거

외국인 관광객의 상품 구매는 곧 '판매대를 넘어선 수출(Export über den Ladentisch: 역주 - 판매과정을 생략한 직접적인 수출)로 분류되어 소매상(Einzelhändler)은 소위 이 '판매대를 넘어선 수출' 에서, 부가가치세를 세관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원칙적으로 판매상의 부가가치세를 여행자들은 다시 돌려받고, 판매자는 비용상 중립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왜냐하면 여행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줄 경우, 판매자는 그 세금을 세관으로부터 돌려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 준다든가 혹은 현금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법에서는 소위 '가능규정(Kann-Bestimmung)' 을 두었다. 이로써 여행객은 큰 낭비와 몇몇 케이스에서 발견되듯이(중간자인 판매자는 관세환급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이익을 챙겨온 사례

가 발견되었다) 사기의 위험 없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거래에서 <Global Refund> 시스템을 부가세 환급절차를 위해 이용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이것은 <Tax Free Shopping> 이며, 'Duty Free(면세-처음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것)' 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독일 내에서 <Tax Free Shopping>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매자의 주소가 EU 경계선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소위 '제3국 고객'). 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법적 근거는 판매세법(Umsatzsteuergesetz) 제6조 제1항 제2호 '비상업적인 여행을 통한 국외로 반출되는 물건에 관한 판매세의 면제(Umsatzsteuerbefreiung für Auslieferung im nicht kommerziellen Reiseverkehr)' 또는 '판매대를 넘어선 수출(Export über den Ladentisch)' 에 의거한다.

Ⅱ. 〈Tax Free Shopping〉의 원칙

1. 원 칙

<Tax Free Shopping>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을 때 가능하다.

여행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환급의 가능성 여부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을 때인데, 우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그것을 증명해야 여행객은 보세를 받을 수 있다.

2. 조 건

우선, 판매자는 다음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물건의 해외반출 증명서(이름, 구입일, 관세인장이 찍혀 있고, <Tax Free Shopping>의 특별한 마크가 있으며, 물건의 양을 기입한 증명서)
- 구매자 증명서(판매자의 이름, 주소, 관세인장이 찍혀있는 증서)
- 구매영수증(물건의 가격과 내용이 기재된 증서)

다음으로 독일 내에서 물건을 구매한 관광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소가 EU 밖이어야 함.
- 구매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물건이어야 함 (구매한 달은 기산하지 않음).
- 구매한 물건은 사적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어야 하며, 꼭 자신이 써야 할 물건일 필요는 없음.
- 구매한 물건은 세관에서 제시해야 하며, 그 물건에는 세관인장을 찍어야 함(인장이 없어 세관에서 인증받지 못할 경우, 보세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3. 독일의 환급 제도

독일 내에서 판매세(Umsatzsteuer)는 2007년 1월 1일 이후로 7~19%까지 징수되고 있는데, 현 환급 대상인, 판매세의 일부인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7~19%가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행객들은 모든 세율을 19%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해 혼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예를 들면, 일반생필품 혹은 책의 경우 7%이다). 물건의 가격

과 용도, 유통 과정에 따라 19%까지 징수가 되므로, 징수된 비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판매금액(소위 소비자 가격)의 경우는 19%의 세율이지만, 15.97%(부가가치세를 제외한)를 소비자는 보세되어진 비율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Ⅲ. 〈Global Refund〉

1. 〈Global Refund〉의 설립 이유와 목적

<Global Refund>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판매자의 증명절차를 매우 간소화해주며, 입법자가 법에서 정의한 환급 가능성을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전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lobal Refund>는 전세계 37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지급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소를 전세계 700여 군데에 배치하고 있다. 이 회사가 목표하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간소화된 세금환급절차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합리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2. 환급 방식

세액환급 장소에서 환급을 하는 것은 관광객에게 아주 편리하여, 관광객은 곧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입처에서 발행하고, 세관으로부터 <Global Refund>의 인장이 찍힌 증서(물론 물건의 영수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환급영수증으로서 역할을 한다. 물론 금액이 클 경우 거래를 위해 외국으로의 송금 또한 가능하다.

<Global Refund> 서비스는 <Tax Free Shopping>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하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표기는 많은 여행객에게 잘 알려진 하나의 심볼이 되었다. 판매자는 판매처에 이 마크를 달아, 여행객들에게 그 판매처가 세금환급을 해주는 쇼핑장소임을 알려줘야 한다. <Global Refund>의 <Tax Free Shopping>의 마크는 다음과 같다.

TAX FREE SHOPPING

Global Refund의 <Tax Free Shopping>의 마크

24만 개가 넘는 판매자가 전세계적으로 이 마크를 공유하고 있다.

3. 독일 〈Global Refund〉

독일의 경우, <Global Refund> 독일 유한회사(Global Refund Deutschland GmbH)가 1986년에 설립되었고, 뒤셀도르프에 영업소를, <Global Refund>의 자회사를 니옹(스위스에 위치)에 가지고 있다.

Ⅳ. 환급 과정

1. 판매처: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건의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구매시에 구매자와 환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이것은 묵시적·자동적으로 <Global Refund> 증서의 제시를 통해 이뤄진다. 이 증서는, <Global Refund>와 협약을 맺은 모든 판매처에서 관광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증서에는 구매영수증이 필히 동봉되어야 한다.

2. 세관의 날인

여행지를 떠나기 전에, 여행객은 공항 혹은 여객장소에 비치된 세관에서 짐을 부치기 전에 자신의 물건을 확인시키고, 판매처에서 받은 증서에 세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만일 EU 내에 계속 여행할 경우, 마지막 EU 여행지에서 확인한다).

3. 현금으로 환급

세관에서 증서에 날인한 후, 여행객은 <Global Refund>의 지급장소에서 환급증서를 제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현금 환급을 받으나, 여행객이 증서와 동봉된 우편봉투에 증서를 넣어 <Global Refund>에 보내서, 그가 원하는 방식 -신용카드나, 수표 등- 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Ⅴ. 〈Global Refund〉를 통한 거래의 장점

1.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관광객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판매대를 넘어선 수출(Export über den Ladentisch)' 행위)를 할 때, 재정관청으로 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과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사전지급이 가능하다.

<Global Refund>를 통해, 여행객에(현금환급으로서) 사전지급이 가능하다.

3. 소비세관련 사기행위로부터 개선된 안정성

위조방지 스티커와 형광물질로 처리된 보증수표(여기선 Global Refund Tax Free Cheques를 말함)를 사용해 사기행위로부터 안전하다. 물론, 환급금액 지급장소에서도 기기(PSM 100)를 이용하여, 인장의 색이 독일 세관으로부터 비롯된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거래자 증빙의 축적

증빙수표들은 <Global Refund>에 축적되고, 거래자에게 <Global Refund>로부터 이전에 받은 환불액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것은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관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Global Refund>의 업무영역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항상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가치 있는 추가 서비스의 제공

1) 마케팅 서비스: 판매통계와 자료를 거래에서 발생하는 Tax Free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다.

2) <Global Refund> 아카데미: 판매자를 위해 무료로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다.
3) 전자정보 서비스: 계산대에 환급을 위한 서류를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Ⅵ. 〈Global Refund〉를 이용할 때 관광객이 얻는 이점

1. 정 보

<Global Refund>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전세계적으로(여행객의 출신국에서 또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Tax Free Shopping>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환급신청서 획득의 편이성

관련 판매점에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서를 얻기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거래 서비스

판매자와 환급서비스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Global Refund>가 자문을 해주고 있다.

4. 현금 환급

<Global Refund>는 전세계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행객에게 어디서나 현금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조 희 원
(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